

# 불법개조 차량 도로 활개 '안전 위협'

###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교통사고 원인' 광주서 최근 3년간 '임의변경' 5,453건 적발

불법 개조차량이 도로를 활개치면서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변경 건수는 총 5,45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846건에서 2017년 2,6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1,997건으로 줄었지만 불법개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광주시가 적발한 불법 개조변경 차량 적발유형은 전조등을 고위도 방전램프(HID)로 교체하는 등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3,72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5,453건

중 68%를 차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어 ▲타이어·휠·차체 문짝 개조 432건 ▲안전기준 위반 328건 ▲기타 적발 287건 ▲소음기 불법 튜닝 89건 ▲일반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40건 ▲차량 너비·높이·폭 임의개조 6건 ▲화물자동차 적재함 창 유리 설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차지한 전조등을 HID로 불법 개조할 경우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 HID는 규격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 이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D 불법튜닝은 성행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향지시등이나 후방등의 색상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후방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못 읽을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불법개조 등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대상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개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를 설치하면 마주 오는 차량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할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내 차는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라는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5~15	흑산도	7~13
담양	4~16	구례	4~16
화순	5~15	곡성	4~15
영광	4~14	완도	7~14
함평	5~15	강진	6~15
무안	5~13	장흥	6~15
영암	4~14	해남	4~14
진도	6~13	고흥	6~13
신안	6~14	보성	4~13

일출 06:07 일몰 19:01  
월출 10:07 월몰 --:--

목포	만조 06:05 18:05	여수	만조 00:36 12:33
	간조 11:12 23:19		간조 06:35 18:45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전남도, 이동식 화장실 비리 수사 의뢰 업체-공무원 유착 의혹 등 현장감사 착수

전남도가 공공조달 계약내용과 다른 이동식 화장실 납품에 대해 자체 감사와 함께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이 탐진강변에 개당 1억원을 들여 설치한 화장실 4동 가운데 절반이 간이사위장으로 시공된 과정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화장실 2동도 애초 계약과 다른 화장실로 시공된 경우도 파악하고 있다.

장흥군은 4억57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 화장실 4동을 발주했다. 분노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A업체가 특

허를 보유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내용, 대금지급 전 시행한 검수와 달리 화장실 4동 중 2동이 엉뚱하게도 사위장으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화장실을 설치과정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도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며,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확인 결과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등 감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신명나는 고희잔치 10일 오전 광주시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희망플러스 사랑나눔 고희잔치'에서 빛고을 전통문화예술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 2년 구형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원을 뜯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 모씨(51)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사기혐의

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 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돈은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전직 시장으로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내려진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또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씨의 아들 취업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에 추가 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광민 기자

## '항공기 바퀴파손' 광주공항 운항 정상화

항공기 바퀴파손 사고로 이용이 중단됐던 광주공항이 10일 정상화됐다. 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공항에서 노선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항됐다.

공화측은 바퀴가 파손돼 활주로에서 있던 아시아나항공 A320 항공기를 전남 오후 8시 50분께 계류장으로 옮기고 활주로 폐쇄조치를 해제했다. 이 항공기는 전남 오전 10시 30분

께 광주공항 동편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앞바퀴가 파손됐다.

기장 2명, 승무원 4명, 승객 11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조사관 2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기장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다. /윤영봉 기자

## 정자법 피소 임택 동구청장 '무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주민 최 모씨(73)가 임 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취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임 청장이 공식 후원계좌로 자금을 받았고, 고소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임 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후보로 활동하며 취업알선비 성격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 역할을 한 주 모씨(68)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면 자녀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주씨 소개로 알게 된 최씨로부터 정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취업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광민 기자

## 목포서 흉기 찢린 30대 여 숨져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찢린 30대 여성이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0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40분께 목포시 상동 한 오피스텔에서 A씨(38·여)가 흉기에 찢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3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흉기로 자해한 뒤 쓰러져 있다'는 남민 B씨(42)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